

부광약품, 신약 레보비르 판매 증가

우리증권, 6월 판매액 100%이상 증가 ... 4/4분기 매출 480억원 예상

우리투자증권은 7월9일 부광약품이 과도하게 떨어졌다며 <매수>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3만7000원을 유지했다.

권해순 애널리스트는 “부광약품은 2007년 4/4분기 이후 영업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3월 고점 대비 40% 이상 하락했지만 2/4분기 신약 레보비르의 판매 증가세를 감안할 때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됐다”고 주장했다.

또 “신약 레보비르의 6월 매출은 18억원을 웃돌며 판매금액이 전년대비 100% 이상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준중합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처방됨에 따라 7월 이후에는 월 20억원대에 안착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그리고 “부광약품의 2008년 2/4분기부터 4/4분기까지 분기별 매출액은 418억원, 452억원, 480억원에 이르고, 영업이익률은 각각 30.4%, 31.7%, 31.9%를 기록할 것”이라고 분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7/09>